

# 피서지 바가지요금 잡기 총력전

### 군산시·행안부·전북지치도, 선유도해수욕장 물가안정 합동점검 실시

군산시가 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선유도해수욕장 물가안정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피서지 주변 상가 바가지요금, 음식점 위생 상태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30여 명도 함께 참가, 물가안정 캠페인도 실시했다.

일행은 상가를 방문하여 음식점 사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물가안정 전단지 배부하며 위법 상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업주들의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물가안정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군산시는 선유도해수욕장 개



에 대비해 휴가철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으며,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한 물가 관리 △부당요금 신고센터 4개소 운영을 통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원식 군산 부시장은 "앞으로도 피서지 바가지요금 현장 점검 및 물가안정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유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 소외계층 사각지대 해소·적극적인 업무추진... 탁월한 행정 성과 창출

군산시는 지난 15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1, 우수1, 장려1, 협업팀2, 공무직1)을 선발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발달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람 쉽' 사업의 특수교사로, 매달 200통 이상의 전화로 고립·은둔된 발달장애 성인을 발굴하고 우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대기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 교육지원과 김민정 주무관이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고등학생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와 협업하여 학과 체험형 진로캠프, 청소년 자기계발 연수 자기신성장학금 사업을 추진한 교육지원과 장세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가 많은 고유 특성을 발견해 지역특화사업으로 관내 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낸 흥남동 강영란 복지지원계장이 뽑혔다.



김민정 주무관



장세진 주무관



강영란 계장



김민정 주무관



장세진 주무관



강영란 계장

공무직 부문에서는 38명의 군산시 관광 해설사를 관광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지역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상시 관광객의 각종 문의의 전화에 친절하게 응대 한 관광진흥과 최윤일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각 부서의 시민 추천을 거쳐 규제혁신, 경제 활성화, 민원·갈등 해결, 창의적·선제적 정책 발굴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낸 우수사례 8건을 대상으로 사전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군산시는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산 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신원식 군산 부시장은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조직문화가 자리잡도록 창의력을 발휘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함열여고 기숙사 '모란학사' 개관

### 익산시·전북자치도교육청, 북부권 교육환경 개선에 힘 모아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한 함열여자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됐다.

익산시는 함열여자고등학교가 17일 기숙사인 '모란학사'의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과 이봉길 함열여자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서거석 전북교육감,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도 의원, 총동창회, 재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함열여자고등학교는 1967년에 개교해 2024년 기준 졸업생 12,127명, 현정원 281명의 학생들이 배움을 얻고 있는 교육의 요람이다. 모란학사는 원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2004년 운영을 시작했으며 20년 만에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했다.

함열여고 한 기숙사생은 "기숙사에서 지내면 등하교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아서 학업에 도움이 된다"며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강영석 부시장은 "교육은 백년지계라 하듯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기숙사 개관식이 학생들의 꿈을 만드는 날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청년귀농인 정착 지원 박차

### 전국 최초 청년후계농·귀농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 포함

### 익산시 청년후계농과 귀농인, 추천서 발급 후 LH에 입주신청

익산시 청년귀농인들이 LH에서 건설 중인 익산 제3일반산단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입주신청 자격 중 지역전략산업 일자리 종사자에 청년후계농 및 귀농인을 포함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행복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일자리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임대파트이다. 지역일자리 종사자에는 창업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가 해당된다.

익산시는 청년후계농들과 귀농인들이 주택 마련 자금 부족 등으로 지역정착에 애로가 크고, 지역의 농업·농촌 소멸방지를 위해 신규 농업인들의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행복주택 시행사인 LH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 청년후계농 및 귀농인을 지정하는 성과를 냈

다. 행복주택은 지상 10층의 3개 동(25㎡, 36㎡, 44㎡), 200호 규모로 내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 공고와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후계농과 귀농인 추천자격은 농촌지원과(063-859-4320, 4966)에 문의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아 일자리연계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는 행복주택이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농장과의 거리가 짧아 농업 활동에도 편리성을 갖춘 만큼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은 청년후계농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최고의 도농복합도시로 청년·귀농인의 거주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창업에 필요한 정책발굴과 사업추진으로 청년·귀농인 정착 일번지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오성종합기획·우경에너지

### 익산에 수해복구물품 기탁

익산시는 17일 오성종합기획(대표 박기현)과 (유)우경에너지(대표 이다스리)가 수해복구를 위한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성종합기획은 1,000만 원 상당의 생수 1만개, (유)우경에너지는 600만 원 상당의 이온음료 6,000개를 전달했다. 기탁된 물품들은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수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기현 대표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파손, 침수 등 피해를 본 분들의 아픔에 먹먹함을 느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고 말했고, 이다스리 대표는 "고난을 극복하고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이번 수해로 일상과 삶의 터전에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의 마음에 위도가 될 기탁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해 피해가 빠르게 복구돼 평온한 일상생활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버려진 화분 등

### 기탁받아 생태환경 조성

익산시가 씨앗, 방치된 화분, 키우기 어려운 화초 등을 기부받아 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익산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관리하지 않아 버려질 화분 등을 기부받아 생태관광지 환경 조성에 사용하고 있다. 쓰레기 감소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식물 식재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기부된 씨앗, 화분 등은 금마면 생태관광지 내 도토리생태원, 나비체결장 등에 식재돼 생태 환경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환경정책과(063-859-4970, 5431) 또는 익산시생태관광정책팀(010-8119-37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역 환경정책과장은 "화분을 지원으로 기부해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